

1987 학년도

졸업논문

칼빈의 교육 사상과 교육신학 연구

대한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성 정 순

칼빈의 교육사상과 교육신학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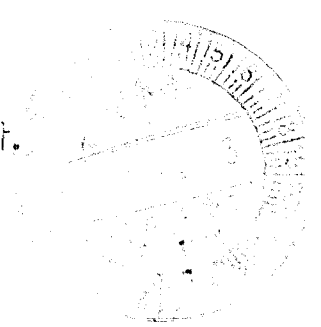
지도교수 : 이 우 신

이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 합니다.

1988년 1월 일

기 독 교 고 육 학 과

성 정 순



영양수의 개념과 단위를 인정함

심사위원:

이우진

1988년 1월 일

대한신학대학

본 논문을 작성하기 까지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 논문을 작성하도록 시종 친절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우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 1월

성 정 손

칼빈의 교육 사상과 교육 신학 연구

목 차

제 1 장	서 론	2
제 1 절	연구 목적과 의의	2
제 2 장	칼빈의 생애와 교육 사상	4
제 1 절	칼빈의 생애	4
1.	종교 개혁자로서의 칼빈	4
2.	교육자로서의 칼빈	6
제 2 절	칼빈의 교육 사상	7
제 3 장	교육 신학 이해	14
제 1 절	신학과 교육의 정의와 목적	14
제 2 절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신학	17
제 4 장	칼빈의 교육 사상과 교육 신학 이해	19
제 1 절	칼빈의 교육 목적과 방법	19
제 2 절	칼빈 교육 사상의 근거	20
제 3 절	칼빈의 교육 신학 내용	26
제 5 장	기독교 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28
제 6 장	결 론	31
참 고 문 헌		3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과 의의

교육신학이란 기독교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제안인 것이다. 이 교육신학은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적 행의 전체를 뒷받침하는 성서적 이해, 계시, 하나님의 이해, 인간이해, 세계와 역사의 이해, 그리고 교육과정과 방법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취급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 학문적 시도는 신학의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 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신학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나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적"(christian)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신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과 신학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신학적 함축의미(Theological implication)는 기독교 교육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 신학들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적지 않은데 있다. 예를들면, 개혁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모두 신교의 굴거안에 있으나 그 차이는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의 사상적인 차이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사실 기독교 교육은 이미 그 기초에만 아니라,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학이 스며들어 있으며,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자가 건전한 신학자가 되지 못한 까닭에 교육 활동에 있어서 혼란과 그릇된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채, 참되고 올바른 신학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자는 먼저 신학자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신학의 원리위에다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은 혼란과 도탄

중에 빠지게 되어 기독교 교육의 본 궤도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신학자임과 동시에 교육자이었다.

칼빈의 신학 사상과 그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여 보고자 한다. 사실 칼빈은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서 자신의 신학 사상을 교육을 통하여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칼빈이 갖고 있었던 신학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신학 사상이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데 그 양자가 상호 일관성(Coherence)과 적용성(Applicability)을 어떻게 가졌는가를 박힘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2 장 칼빈의 생애와 교육 사상

제 1 절 칼빈의 생애

1. 종교 개혁자로서의 칼빈

그는 1509년 7월 10일에 동북방에 자리잡은 노온 (Noyon)이란 지방에서 아버지 제랄, 코방(Gerard Cauvin)과 어머니 잔느.루.후랑(Jeanne Le franc)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네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위로 둘은 조사하고 형은 샬(Charles) 하나 뿐이었다. 그리고 아래로는 동생 안토니(Antoine)가 있었다. 이때 그의 이름은 잔.코방(Jean Cauvin)이었다.

칼빈은 어릴때부터 총명이 뛰어났고 한편 그 어머니를 통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배워 익혔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샬. 데.랑게(Charles de Hangest)라는 주교의 비서로 있었으므로 칼빈으로 하여금 그 지방 상류 계급들과 더불어 학업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1523년 14세된 그는 부친의 뜻을 따라 파리에 있는 라마르슈¹⁾(College de La Marche)에 입학하여 당시 가장 유명했던 콜디어(Mathurin Cordier)라는 인문주의자이고 교육 개혁자이며 羅典言語教授에게 고전어를 배웠다.

여기서 일선 과정을 마친 후 특수한 신학²⁾ 과정을 배우기 위하여 몬테그(College de Montaigne)로 옮겼고 거기서 오랫동안 유럽의

주: 1) 이종성, "칼빈의 생애와 그의 위치",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한국칼빈신학연구회, 1965), P5

2) T.H.L. Parker, 칼빈의 모습, 김재준역(서울: 기독교서회, 1960), P6.

학계를 이끌어온 명목론적 신학과 함께 論辯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윌리엄 옥컴(William Occam), 돈스스코 더스(Duns Scotus), 가브리엘 뵈엘(Gabriel Biel) 등의 저서를 애독하였고 페트, 콤발트(Peter Combar)의 문집인 명제집(Sentences) 등을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한편 스콜라주의를(Cholasticism)정상학과로서 배웠으나, 그는 신통찮게 여겼다. 3)

칼빈은 이 당시 노한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종교 개혁의 서책들을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칼빈이 19세되는 1528년 몬테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돌변한 부친의 요구에 순종하여 법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오를레안(Orlean) 대학으로 갔다. 이곳은 저명한 인문주의 학자들인 에라스무스(Erasmas) 등이 번갈아 교편을 잡은 인문주의의 본거지였다. 이 대학에서 칼빈은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1532년 1월) 1529년 가을 근처에 있는 불주대학(College de Bourges)에 당시 세계적인 법학자인 안드레아, 알키아티(Andrea Alciuti)가 이태리에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옮겼다.

그런데 법학의 정수로 배우는 한편 로트베일에서 온 독일인 헬라이어 교수 불말에게서 헬라어를 배웠다. 그리고 여기서 특기할 것은 후일에 그의 동역자였고 후계자가 된 베자(Theoder Beza)를 만났는데 그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칼빈은 18개월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교수들 대항한 일이 많고 학생이라기 보다는 교수로

주 : 3) T. H. L. Parker, 前掲書, P. 7

여기 어졌다고 한다.

1531년 5월 26일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자 취미없는 법률 공부를 버리고 인본주의 학자가 되기 위하여 특히 히브리 헬라어 공부에 열중했다. 1532년에 그의 처녀작인 "세네카의 관용론 註記 (Commentarian De clementia Senecae)을 자비로 출판하여 학계에 내어놓았다. 이로써 당시 칼빈이 얼마나 인본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후 1532년 4월부터 일년간 보학인 오를레안대학의 학생감사의 대리직분을 받아 보았는데 이때 후일 그가 사울렛에게 편지로 고백한 "불의의 급격한 매개"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2. 교육 자로서의 칼빈.

존. 칼빈(John Calvin)이란 책을 쓴 볼만(P. Vollmar)은 칼빈이 신학자이고 설교가이고 교육자이며 정치인⁴⁾이라고 말한바 있거니와 교육적 측면에서 그를 고찰한다면 徹頭徹尾 교육 자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 해당하는 "독자에게 주는 서신"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교회에서 교사의 임무를 내가 맡은 후 경건한 순구한 교리를 주장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외 어떠한 일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실로 나는 양심과 하나님 자신과 천사들을 증인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한 사람의 교사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한 글에서 그는 그의 글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주 : 4) P.Y. De Jong, "기독교 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신학지남, 1969년 12월 (26권 4집), p.49.

따라서 칼빈은 그의 교육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가르치기 위한 고제 저술을 통하여 신학자의 이름을 얻었고 가르키는 실제 생활을 통하여 설교자의 평을 받았으며 교육이 효과있게 실현되고, 나아가 그가 갖은 교육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제자인 존. 녹스(John Knox)는 제네바를 가르켜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학교⁵⁾라고 말한바 있거니와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로 설명한다. 즉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사이다. 학교 또는 교과목은 성경이다. 인간은 학생이다."⁶⁾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교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 쓰여진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고, 둘째로 우리가 그 성경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직접 성령으로 가르쳐 깨닫게 한다.⁷⁾라는 뜻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아, 그의 알미니 교육적인 사고 방식을 따라서 그의 교육 사상을 그가 말한 교육적 입장을 근거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칼빈의 교육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가슴과 동으로써 실천에 옮긴 신학자였던 칼빈은 결코 교육 이론에 빈곤하지 않았다. 칼빈은 참으로 대중 교육의 아버지일뿐 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창시자인 것이다.

주 : 5) A. Pakin . 前揚書, p.193.

6) T.H.L. Parker , " . p.52

7) 上揚書 , p.52 - 53.

그가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⁸⁾야말로 칼빈의 신학을 교육이론화 시켜서 실천했던 실증인 것이다. 그러면 칼빈의 교육에 관한 자료와 또한 그 원리와 사상을 명확히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주요 질문에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9)

- 1) 교육의 기본은 무엇인가? (What is the foundation?)
- 2)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What is the educand. ?)
- 3)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 4) 교육의 주제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ubject matter?)
- 5)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ethod ?)
- 6) 학교 교육의 조직 문제? (What is the organization of school education?)
- 7) 교과목은 무엇인가? (What is the discipline ?)

위의 질문은 하나 하나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칼빈의 교육관을 보다 깊게 그리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칼빈의 교육 사상의 기본은 무엇인가?

1538년의 Genevan Gymnasium 이라는 계획에서 그는 분명하게 모든 배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 기본이었다.

주: 8)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운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칼빈에게 있어서 면류관과도 같이 성취였다."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9), p.191-226, p.211.

"칼빈은 신정사상에 맞도록 시민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9) J. Chr. Coetzee: op. Cit, p.201.

칼빈은 성경의 근본적 권위가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수납되므로 교육의 영역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성경은 완전하고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요불가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논리의 최고 최종의 권위가 된다. 그러나 죄인들인 인간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곤란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이며, 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다른 그 무엇이 더 요구되지 않는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10)

2)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칼빈은 누구라고 보았는가?

하나님의 전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인간 지식에 관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주고 있다.

교육은 인간에 관한 지식없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교육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피 교육자를 알아야만 한다고 했다. 11) 그러면 칼빈이 인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지식에 관한 첫째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12)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간 지식에 관한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에 떨어진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상태를 잃고 말았다.

주: 10) Idem.

11) Idem.

12) Ibid, p.215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 관한 세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으나 백명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서 인간지식에 관한 마지막 부분이 준비가 되었는데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이다. 이 구원이 인간 지식으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가능성에 관한 교육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이것은 교육의 필요 요건이다. 13)

우리는 피교육자를 교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후에도 얼마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3) 칼빈이 추구한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아동들을 기독교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의 실천은 하나님께 경배다. 생극, 밭, 명상, 기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생활의 최종 목표이며, 인간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14)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의 기독교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자기 부정이다. 15) 또한 칼빈은 종교 교육이 못지 않게 일반 교육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교양학과는 하나님 지식을 충분히 알도록 도우니까 말이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신으로 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예술을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 부터 발원된 것이다."

주: 13) Idem.

14) Idem.

15) Ibid, P.117

그리고 그 예술로 부터 경험되어 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이익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 16) 그러므로 칼빈에게는 일반 교육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4) 칼빈의 교육에 관한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칼빈은 교육의 주제로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구별하였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지식도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 근거한다고 보았는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안에서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된다고 하였다. 17) 그런데 인간에 관한 지식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성경을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의 주제로 두 개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이다.

5) 칼빈의 교육 방법론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경요를 깊이 연구하여 보면 이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18)

첫째로 창조주 자신이 우리 인간들을 영육간 불완전한 상태로 부터 인도하여 내시기 위한 교육의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다. 죄인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며, 성경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사실,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며 인간의 소명과 예정에 관한 중요 사실들이다.

주: 16) Idem.

17) Idem.

18) Ibid; p.216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또 성경과 자연에 관한 하나님
의 계시 없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인간의 소명과
예정 의 사실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로 교육의 일반적 방법에서 인간 자신에 의해서 사용 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기 부정,
기도, 묵상, 선행 등이다. 만약 고사편에서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참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교육의 특별 방법으로서
칼빈은 뚜렷한 것이 없다.

6) 칼빈은 학교의 조직에 관해서 아무 데서도 박린바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세가지를 말했는데 가정과 학교, 교회와 국가, 국가
와 학교이다. 19)

7) 칼빈에게 있어서 교과목인 훈련 (discipline)은 교육이론과
교육 실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훈련에 관한 이론은
그가 도덕성을 토론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권위와
자유는 두 개의 주요 문제이다. 권위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강요
제 2권 8장에서 충분히 취급되고 있다.

칼빈의 견해는 (1)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 권위이며,
(2)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권위를 위임했다는 것과 (3) 인간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위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²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의 자유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칼빈은 강요 제 3권 19장에서 간단하게 "주님안에서만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칭의의 부록이라고 했다. 21)

주: 19) Ibid., p.224

20) Ibid., p.221

21) Idem.

기독교인의 자유를 요약하면 (1) 인간에게는 절대적 자유가 없다.
(2)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야 한다.
(3) 인간은 지상에서의 아버지와 천상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 자유를 즐긴다. (4) 인간은 하나님법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5)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과 인간 자신 사이에 순수한 결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외에 인간의 권위에도 복종
해야 한다. ²²⁾ 그러므로 학교와 가정에서의 기독교적 훈련은
기독교 권위와 자유로 정의된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인간이 자기의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주 : 22) Ibid., P.223.

제 3 장 교육 신학 이해

제 1 절 신학과 교육의 정의와 목적

기독교 교육의 원천을 이해하려면 신학의 원리인 삼위일체의 교리와 그 교리에 따르는 기타 교리들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기독교 교육의 원천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원천이 되는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는 까닭이다. 사실 신학 분야에서도 교육의 가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태도가 매우 막연한 상태인 것이다. 23)

신학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교육이란 교회 심리와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알지 못하고 교육이 근본적으로 신학적 훈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자들 까지도 이들의 관계가 깊은 것을 조금도 생각지 못하고 도리어 교육 분야에서 신학적인 논제를 겸하는 것은 담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 교육이란 상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핌에 있어서 먼저 신학의 주의와 목적을 알아 봄이 순서일 것이다. 만약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교육 신학에 관한 연구를 수박 겉핥기 식이 됨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4)

벌코프(Berkhof)는 신학을 정의하여 "교의와 신학의 연구를 하나님의 교리와 더불어 시작한다"고 했다.

주: 23) 김득용, 기독교 교육학 원론, (충신대 출판부), 1976, 190

24) John M. Hull; "what is Theology of Education"?
(Swat Journal of Theology.) Vol.30, pp.3-29, p3

또 바빙크(Bavinck)는 신학을 가리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적 체계, 더욱 특수하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가 자기에 관하여 자기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계시하신 그 지식이다."²⁵⁾ 고 했으며 워필드(Warfield)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우주에 관계를 논하는 학"이 바로 신학이라고 했다. 이상의 정의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이 바로 신학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 신학이 갖는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의 확인과 조직적인 전시가 그 임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적 사실들의 확인과 전시에 있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뢰하여야만 하며, 인생의 주관적인 종교 체험에 기초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정의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기독교 교육이므로 기독교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과의 다른 점을 기꺼이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교육은 단순히 아동으로 하여금 그의 자연적인 경향성(Natural tendencies)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 그러므로서 아동이 사회속에서 자신이 선천적인 재능력을 충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반해 인간이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속에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갖는 정의며 목적이란 이는 확실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²⁶⁾

주: 25) 박형룡, 교의신학 제 1권, 백함출판사, 1972, 50

26) Jan Waterink;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Grand Rapids; Eerdmans, 1954), pp9-10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박힘으로서 시작되고 결론을 맺는다. 27)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교육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 그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28)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수행되어지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볼 때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정치시켜주신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자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된 인격으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기독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직 기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학과 교육과의 정의와 그 목적에서 서로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교육의 정의는 신학의 정의 속에 미리 내포되어 있으며, 모든 진리와 실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관한 연구가 신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의 결정은 신학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신학과 기독교 교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주: 27) H.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67. P32.

28) 관하백; "하나님 중심의 교육"

제 2 절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신학

신학을 이론적 기초로 한 교육 이념은 교회나 가정은 물론 사회 일반 교육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신학과 교육은 "필요하지만 충분치 못한 관계" (Necessity but not Sufficiency)가 아니라 "필요하고도 충분한 관계" (both necessity and Sufficiency)인 것이다. 사실 신학은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까지 생명이 작동하는 기초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신학을 바로 수립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 교육 경험에서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교육답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학 그 자체가 교육 부면에 있어서 통일과 상호관계, 목적 그리고 가치있는 목표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관계를 번(Byrne)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²⁹⁾

(1) 신학은 모든 지식과 진리, 그리고 모든 실재에 관계된 뼈대를 제공하여 주며, 성스러운 또는 세속적인 진리 모두가 공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준다.

(2) 다양한 삶의 영역은 신학이 설명하는 신앙의 표현에 따라 조정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철학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겠다.

(3) 실재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을 특수화시키고 있다.

(4)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됨으로 진리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다.

(5) 하나님의 창조, 내재성 그리고 초월성과 같은 사상체계를 제공한다

주: 29) H.W. Byrne; op. cit, p. 23b.

(6) 역사와 관련지어서 목적, 성육신 그리고 운명에 관한 범주를 제공한다.

(7) 신학은 하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중심점이 된다.

(8) 신학은 목적과 운명, 이 두가지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다.

(9) 신학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는 생애로 바로 지도하여 준다.

(10) 신학은 계시의 영적 보편성을 통하여 교과 과정의 내용을 규정하여 준다. 신학이 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 근거까지 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제 4 장 칼빈의 교육 사상과 교육 신학 이해

제 1 절 칼빈의 교육 목적과 방법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관문에 두가지 큰 혁명이 있었으니 하나는 문예부흥이요. 다른 하나는 종교 개혁이었다. 이들은 중세의 교회 중심 사상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그 사정적 입장이 현저한 상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예부흥을 통하여 형성된 인본주의(Humanism)는 교회중심의 가치를 깨트리고, 거기에다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의 척도를 대입하였고, 종교 개혁은 역시 교회 중심의 가치대신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재확립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의 대표적 이론가가 칼빈인만치 그의 교육 사상은 자연히 하나님 중심사상으로 전개될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그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이해되는 하나님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설명되고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의 최고 지상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Solideogloria)이라는 표준을 설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목적을 떠나서는 교육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칼빈의 교육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설교를 통한 교육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설교는 그가 시민을 가르키고 청소년을 가르키는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써 첫째로 성경을 가르키는 것이 항상 중심이 되었고 둘째로 성경을 가르키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교수 방식으로서 강의식 설교를 하였고, 세번째로는 그 설교는 언제나 실제 생활과 유리되지 않고 실생활을 이끌고 실제와 결부되는 설교를 함으로 시민 교육의 목적을 달성코져 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그의 이 교육 방법은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의 생애와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제 2 절 칼빈 교육 사상의 근간

1. 절대적 교사로서의 하나님.

칼빈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으로 부터 출발하여 ³⁰⁾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데 그의 교육 사상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많은 인본주의 교육가들이 인간에서 부터 교육사상이
전개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칼빈의 교육 사상의 기점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그의 "기독교 강요" 제일편 제일장에서
부터 설명을 시도하고 있거니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 유일하시며, 전지 전능 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냐?

하는 신인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는 신인식은 하나님의 작용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³¹⁾

칼빈은 주장하기를 원래 인간은 창조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으로 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어떤 감정 (Sensus divinitatis) 이 자연적 본능으로 존재한다
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 30) 丁. 칼빈, 기독교 강요 제일편, 제 이편 中山書院記,

(동경: 신교출판사, 1953) 31.

31) 전경연, 前掲書, 99.

왜냐하면 사람이 무지를 가삼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넣어 주신 까닭이다. 32) 라고 말했다.

이 "종교의 씨" (*Semen religionis*)라고 불리는 천투의 감정으로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하여 당연히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나, 인간은 죄를 지어서 자연계만으로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섬김으로 인간은 더욱 비참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능력에 적합한 방도를 취하여 계시하였는데 이것이 곧 적음이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적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받아드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받아드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신인식의 두번째 관문으로서 칼빈은 신인식을 위해서는 인간 인식이 긴밀히 상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자기의 비참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한편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고 나아가 이를 응시함으로써만 자기를 돌아보아 낮아지지 않을 수 없고 자기에 대하여는 순수한 감정을 가진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신인식의 세째 원리는 신인식을 위해서는 신앙적 실제 실천을 해야한다는 원리이다. 환언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일단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보다 깊고 정확하게 신인식을 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 칼빈은 바로 말하면 종교와 경건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단,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원만한 신앙뿐 아니라 신에 관한 바른 인식은 순종에서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주: 32) John Calvin, *Ibid*, p. 40.

그래서 참된 하나님 인식은 단지 그의 존재를 아는 것 뿐이 아니고 그의 영향도 알고 그에게 대하여 경외의 마음을 이르고 의뢰하며 찬미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이 참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계시로 보여 주는 성경의 기록을 약면 그대로 수납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겸손히 시인하여 그의 요구대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알려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유일의 교사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과서와 학교로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교사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들은 교회이거나 일선 학교를 불구하고 원 교사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교와 교과서로서의 성경

가. 칼빈사상의 원천이 되는 성경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시종한다고 말한바 있거니와 칼빈의 이 하나님 사상의 출처는 어디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칼빈은 명백하게 답변하고 있다. 즉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狂亂(광란)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의 장소로서 성경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 사상의 최종 원천은 오직 성경이요, 그의 모든 사상은 성경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칼빈 연구가인 헬만, 바우케(H. Bauke)는 칼빈 연구의 결론으로서 칼빈이 어떠한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思辨的(논리적으로)으로 논리를 전개한 조직가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칼빈은 철저한 성경주의자로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에 보이는 일견 상반된 주장들을 성경적 원리에 의하여 통합하는 상반 통합주의의 입장을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칼빈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반설위에 그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성경의 권위

위에서 우리는 칼빈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반설위에서 있다고 했는데 이 반설은 어떻게 입증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칼빈은 원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그 자체의 권위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사실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길은 첫째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논리를 능가한다³³⁾고 주장하고 이어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증인인 것처럼 그 말씀은 또한 성령의 내적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신임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 즉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하는 마음으로 부터 일어나는 확신의 신념인 것이다.

칼빈은 바로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 이론적인 노력이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건전한 신앙을 세우려고 힘쓰는 것은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주: 33) 칼빈, 기독교강요 (제 1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4)

다음으로 근본적인 것은 아닐찌라도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논증을 위하여 그는 "기독교강요" 제 일편 제 8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1) 성경의 질서와 배열, (2) 성경의임, (3) 성경적 권리의 위력 (4) 성경의 단순성, (5) 성경의 인간개생 및 문화 건설의 효력 등을 말하고 있다.

역시 성경의 성경됨은 성령의 확증에 있다고 했는데 "비록 성경이 그 내적 위엄때문에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34) 라고 했다. 이처럼 성령의 확증과 부차적인 합리적 증거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 부터 왔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성경을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信憑性과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권위는 우리의 인간적 판단과 상관없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독자적 권위 (self-authenticating - ἀυτομαρτυροῦσ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한 그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경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칼빈은 역설하였던 것이다.

다. 절대적 교과서로서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였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다.

주: 34) 존, 칼빈, 前揚卷 1.7, p.118.

인간이 성경에서 권위를 인정치 않을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받아드릴 때 그것은 무서운 힘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없고 그 말씀의 권력과 지식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말씀을 떠나서는 항상 헛된 일과 실수를 감행³⁵⁾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³⁶⁾ 가장 합당한 교재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 인간의 고안한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배격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더구나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인간의 정신은 무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³⁷⁾" 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 : 35) 김정훈, "성서학자로서의 칼빈",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한국 칼빈신학연구회, 1965), p. 39.

36) 딤후 3:16

37) 존. 칼빈, 前掲書, 2, 6, ① p. 108.

제 3 절 칼빈의 교육 신학 내용

1. 교회 : 학교로서의 교회

앞에서 우리는 교과서로서의 성경, 교사로서의 하나님을 취급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이해하여야 하겠는가?

학교로서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칼빈의 견해이다.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단지 우리가 교회의 모태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여 그의 젖을 먹고 자라며 죽은 육신의 몸을 벗고 천사처럼 되기까지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어 "우리의 연약성은 우리가 이 어머니의 학교에서 떠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의 학교의 학생인 것이다. 더우기 그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38) 고 했다.

칼빈은 교회라는 이 학교에서만 하늘의 은공을 맛볼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이 학교를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우리는 칼빈이 이와같은 견해를 갖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칼빈은 그의 사상의 핵심 부분에 "경건" 즉 생활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주장하였으며, 그 요구나 주장을 교육을 통해 실현시켜 나갔는데 그 실현하는 곳의 중심이 바로 교회이었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훈련장이었다. 39) 그래서 교회의 제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고의

주: 38) "너희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39) Inst, IV. i, 4.

그리고 가장 순수한 도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일을 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종교 자체를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족하게 보지 않고 그와같은 사실로 학생인 인간이 무슨 유익을 얻게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야겠는가 까지로 실제화시킨 것이다. 40) 이것을 위한 교훈은 교회가 행할바 주 임무인 것이다.

학교인 교회는 실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장 (Training Camp)인 것이다. 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의 신앙의 단일성과 올바른 질서 유지에 진력하였는데 그 예로 "성체전"을 무엇보다 먼저 계정하였으며, 이 성체전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더욱 더 굳게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했다. 학교로서의 교회에서 이 성체전은 학생은 인간에게 교과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인 것이다. 41)

다음의 이 말은 학교로서의 교회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라도 그의 백성을 완전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배움의 주체인 인간)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42)

주: 40) J. Mackimnon; op. cit., p. 228.

41) 한철하 ;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칼빈신학연구회), 1965. pp.74,75.

42) Inst. IV. xiv. 7.

제 5 장 기독교 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오늘날 기독교 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같이 교육의 프로그램에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뚜렷한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래 기독교 교육이 실학적 부문에서뿐 아니라 실천적 부문에서 오늘날과 같이 놀랍게 이룩했던 시대는 없었다. 한 사회에 있어서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향상될때엔 교회도 이에 못지 않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콜리(kendig Brubaker Cully)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의 관계점을 "우리들의 신학적 전망은 불변의 기본 진리를 새로운 경험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구현함에 있어 우리들이 인간편에 치중하여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는 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⁴³⁾ 라고 간략히 논술하였다. 계속해서 논하기를 "역사적 사실에서 얻어진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성있게 남겨진 유산과 옛부터 성령의 역사에 반대되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해야 할 영역이다. 이 지식을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만 가능할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었다.⁴⁴⁾

주: 43) The Search for a christian Education Since 1940.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P. 172.

44) Ibid., P. 180.

기독교 교육의 절대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들은 루터(Luther), 메랑통(Melancthon), 부셔(Bucer), 스톰(storm), 코-디어(codier), 그리고 칼빈등이었다. 이들은 신학적 지식이 기독교 교육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와같은 기독교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신학 연구와 아울러 과거에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한 그들을 알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 칼빈 선생은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많은 공헌을 남기었으므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 선생이 실시한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지 종교 교육이 아니었다. 종교 교육이란 술어는 모호하고 그릇된 인상이 들게 한다. 왜냐하면 종교 교육의 기본 원리와 내용, 그리고 목적이 사회 교육에 대조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교육과 사회 교육과의 중간 입장으로 얼치기에 지나지 않는다. 엄밀하게 따져서 기독교의 순수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따라 기독교 교육 다른 교육이 실시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칼빈 선생은 종교 교육이 아닌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신 분이었던 그의 저서나 활동에서 충분히 보여준 대로 그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항상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조직 교회만이 기독교 교육을 실시할 우선적인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칼빈 선생이 교회에서 목회하실때 그리스도의 지위있는 이름 아래 행정적으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직도 하였고, 복음서 기록에 있는 대로 기독교 복음 진리를 어린 자녀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추진하였다.

칼빈 선생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학 사상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려 복음 운동을 활발히 움직이게 한 강력한 힘을 마련
하여 주었다.

신자들의 모체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
자로서의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성경에 대하
여 칼빈 선생이 말한 모든 것은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임무임을 밝히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이란, 단순히 성경 구절이나 암송하게 하고 신학적 원리를 지식적으로
얻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시편 78:7절
을 통하여 그 개요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여하간 그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참고할 점을 살펴 본다면 교육을 커리큘럼 중심이나
방법을 중심한 교육이 아니라 도리어 목적 중심한 요리 문답의 교육을
칼빈 선생이 수행한 것을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잘알고 섬기는 생활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대로 항상 살게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 사상은 그 출발점을 인간의 회심이나 칭의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두었다. 이와같은 칼빈의 하나님 중심 사상은 그의 교육 사상에서도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의 섭리는 우주 영역 그 어디에도 미치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상하에서 정립된 그의 교육관도 전 포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즉 교회, 국가, 사회, 문화, 예술, 과학이라는 영역도 칼빈에게는 교육을 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45)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신학과 교육에서 공히 취했던 입장은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그의 교육 사상의 이론적 근거인 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의 장인 교육에서도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자로서의 동기와 교육자로서의 동기는 서로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신학은 전실로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신학이었고, 그의 교육적 활동은 또한 그의 신학적 활동으로 표현되었다. 46)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론과 실재가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써놓고 뒷집만 지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몸소 까기가 쓴 교리를 실천한 것이다.

주: 45) *Inst. IV. i. 4.*

46) 칼빈의 생활 모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즉,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였다.
A.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Westwood: Fleming H. Revell Co, 1950), p. 5.

그래서 신학과 교육이 칼빈에게는 별개의 각각 다른 영역이 아니었으며, 바로 이들의 합일된 개념과 그 실천이 칼빈이 추구한 바이다. 이 추구한 바 실증적 표본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인 것이다. 이곳을 통한 실천은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47)

이상과 같은 칼빈의 신학과 교육의 중심된 사상을 배경삼고 그의 교육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주된 원천인 기독교 강요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고리호 시작되기 때문이며, 이 지식이 칼빈 신학과 교육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칼빈은 하나님을 부성애적인 교사로 파악했다. 다분히 신약적인 본위기 보다는 구약적 본위기를 느끼게 하는 엄한 교사로써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은 인간이다. 학생인 인간이 교사인 하나님으로 부터 배워야 할 바는 인간의 한손간 한손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탱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은 이것을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가? 학교인 교회에서 성경을 교과서로 하여 배우게 된다. 48)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중보자로서 파악했는데 이것을 교육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할 때 학생인 인간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담당하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대속자로서 이해하여야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빌 2: 6 - 8)

주: 47) 한철하 ; op. cit., p. 67.

48) 독일의 사학자 Häusser 는 칼빈의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말미암은 파장을 "세계사의 작은 한 조각" (a little bit of the world's history)라고 했다.

P. Schaff : op. cit., p. 264.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다 더욱 확실히 이해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교사와 같이 인간 내면에 교수히 역사
하시면서 대속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와같은 칼빈이 갖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 신학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나가는 데는 더많은 이론의 정립과
구체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실적 입장을 감안하여 볼 때 개혁주의 교육 신학의 확립이
가장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 남 식,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노 의 일, "칼빈의 교육 사상이 서구 근대사회의 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4
- 문 동 환, "요한 칼빈의 교육관", 기독교 교육, 7호 (1965.3.) 22 - 26
- 오 병 세, "칼빈주의 교육관", 김남식(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이 근 삼, 칼빈, 칼빈주의, (부산: 고신대 출판부), 1972.
- 이 종 성, 칼빈, (서울: 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68.
- 이 종 성 역, 니이젤, 원저,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 서회), 1973.
- 황 성 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 신학 연구" 1신학지남 118호 (1980, 여름), 37 - 58.

/ 김득룡 역

"기독교 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1신학지남 136권 4집 (1969, 겨울), 44 - 50.